

[ 사회 ]

입학사정관 선발 대조되는 두 대학

전남대 20~40대 젊은 피 채용  
조선대 4명 전원 교장 출신으로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도입하는 조선대와 전남대가 입학사정관 선발에서부터 상이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이미 활동 중인 조선대 입학사정관이 전원 입시현장에서 뼈가 굵은 고교 교장 출신인 반면, 전남대는 20~40대의 '젊은 피'를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됐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최근 도입되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20억원에 이어 올해 158억원을 전남대, 조선대 등 40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9월 이후 4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했다. 이들은 올해 8월 말 정년퇴임한 오덕렬 전 광주교 교장을 비롯, 박성수 전 중앙고 교장, 류종일 전 송원여고 교장, 오남준 전 곡성고 교장 등 4명이다.

조선대는 올해 이들을 활용해 자기추천자 특별전형(70명), 독

립유공자·국가유공자 특별전형(30명), 만학도·주부 특별전형(20명), 취업경력자 특별전형(60명), 간호학과 남학생특별전형(3명), 특수교육대상자(10명) 등 모두 19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전남대가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전남대 등에서 강사와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이용균(42)씨, 전남도청에서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 업무를 맡았던 류윤희(38)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재훈(28)씨 등 소장파 3명이다.

확실화된 정보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선발방식을 탈피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에 부합한 학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선발 권한을 남용할 경우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실현 단계에 있는 이 제도가 폐기를 선택한 전남대와 관록을 선택한 조선대 중 어느 학교에서 더 연착륙할 지 주목된다.

정성필기자 camus@

“교대 부설 초등학교 공립화 중단하라”

10개 교대 총장단 촉구

광주교대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교대 총장단 일동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국립 교육대 부설 초등학교 공립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대 부설초등학교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 모형과 교육 자료를 개발, 일선

공립 초등학교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당당성 검토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립 부설초등학교를 공립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대로 교대 부설초의 공립화가 이뤄진다면 교대 핵심 과업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이 후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필기자 camus@



댄스 스포츠 경연

23일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 남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월곡동 문화센터 회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문대학원 개설 영향... 대학 인기학과 판도 변화

자유전공·생명과학 ‘상한가’

법학·의학·약학전문대학원 개설과 함께 관련 학과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거나 정원을 대규모 축소하면서 대입 상위권 인기학과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여개 대학에서 법학과를 대신해 개설한 자유전공학부다.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등 주로 2009학년도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 기존 법학과와 정원을 흡수하기 위해 생겼다.

각 대학의 자유전공학부는 신설 첫 해지만 각 입시기관의 배치표 상위를 점령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가 학과에 관계 없이 운영되다가 1~2년 후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프리 로스쿨’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들 증명하듯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연세대 자유전공학부에 2천760명의 수험생이 지원해 5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고려대 43.6대 1, 서울대 11.9대 1 등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 이후 입시기관이 내놓은 원점수별 대학 배치표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의 지원가능 점수는 서울대와 연

세대, 고려대가 381~388점, 성균관대 368~370점 등으로 예상됐다.

가 생긴 자유전공학부는 졸업 후 진로를 뚜렷하게 예상하기 힘든 데다 경쟁격열 학과는 기존의 프리미엄에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도 딱히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약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유리한 생명과학을 비롯해 물리, 화학 등 순수 자연과학 관련 학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동안 인기를 끌지 못하던 학과에 ‘생명과학’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더니 학생들이 몰리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약대가 6년제(일반학부 2년+약학전공 4년)로 바뀌면서 이번 2009학년도 입시에서부터는 약대 신입생도 뽑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자연과학부 풀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의과과와 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조선대가 신선했던 기초의 과학부는 교내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형성했다. 서울대의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도 의과과 다음으로 높은 합격선을 형성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원산지 표시 위반 93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지난 7월8일부터 지난 7월28일까지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65건, 미표시 28건에 5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로 상당한 이익을 편취한 광주시 광산구 A식육점

업주 장모씨를 형사처벌했다. A식육점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뒤에도 올 11월 초까지 1억8천만원 상당의 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1만6천984kg을 해동한 후 국산 냉장육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November 24th, including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regional weather conditions.

사시 최종 탈락자 사상 최대 예고

30명 '부적격자' 의심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최종 관문에서 탈락할 수험생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21일 2차 합격자 등 1천155명을 대상으로 3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30명이 법조인 '부적격자'로 의심돼 각자 면접시험을 치른 당일 따로 남아 심층 면접을 받았다.

심층 면접이 처음 도입된 2006년에는 대상자 26명 중 1명이 면접을 포기하는 등 모두 8명이 최종 탈락했다. 2007년에는 29명이 심층 면접을 받았으나 11명이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매년 예비 법조인들의 면접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

을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탈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2005년 이전에는 10년 동안 최종 탈락자가 1명에 불과했다. 일반 면접은 올해 2차 합격자 1천55명과 작년엔 면접에서 탈락한 11명 등 총 1천166명 가운데 1명이 불의의 사고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해 1천155명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받았다.

집단면접은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 ▲출발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이 개별면접에서는 고 최진실 씨 자녀의 친권 문제 등 제시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법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information for public service exam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에셋코리아) featuring financial services, stock market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Dongbu Gosi Academy (동부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information for public service exams and contact details.